

성서적 현대과학 평가

(Henry M. Morris 저 / 위거찬 역 / 기독교문서선교회 / 1991)

고재형

오늘날 지성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론이 있다면 진화론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진화론은 입증되지 않은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윈에 의해 1858년에 주장된 이래로 지난 일세기에 걸쳐 자연과학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에까지 확산되어 모든 사상과 이론의 뿌리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진화론의 도도한 흐름은 오늘날의 모든 사고와 학문의 근본사상을 지배하고 있어 우주의 기원, 본질, 운명 등을 설명하려는 ‘우주론’ 또한 진화론적 입장에서 그 형태만 달라져 왔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무신론적인 흐름을 제지해 왔었지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이 흐름에 휩쓸려 내려왔다. 본서인 ‘성서적 현대과학 평가’는 이러한 흐름을 저지하려는 시도로서 1967년 달라

스 신학교 세미나에 행해졌던 기념 강연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인 헨리 모리스 박사는 수리학 분야에 조예가 깊은 과학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타협적으로 믿고 열심히 연구한 사람으로 이러한 주제에 대한 논문을 쓸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 책의 원제목은 그대로 번역하면 '성서적 우주론과 현대과학'이다. 즉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우주론과 현대과학과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현대의 진화론적 우주론을 비판하고 성서적으로 바른 우주론을 재구성하려는 것이 본서의 내용이다. 우주론이란 우주와 우주의 모든 구성요소(무생물과 생물을 포함)에 대한 기원, 의미 및 운명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해석이므로 우주론은 그 근본적 성격상 세계관의 문제이며 생활과 의미의 철학이다. 따라서 바른 우주론은 진화론적 균일론이라는 무신론적, 범신론적 입장에서 성립될 수 없고 오직 성서에 유일하게 계시된 초월적이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창조, 유지, 완성행위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다고 본서의 저자는 전제하고 있다.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세 가지 역사적인 우주의 발전과정이 존재하며 이러한 과정은 네가지의 상이한 우주론들로 구별될 수 있으므로 성서적 우주론은 순서적으로 우주생성론, 격변설, 보존론, 종말론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특별한 창조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가 대홍수로 인해 현재의 우주로 급격하게 바뀐 후 마지막 때까지 보존되며 불에 의한 심판 이후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궁극적이고 영원한 우주로 대체된다는 사실이 성서적 우주론의 기본 틀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우주론의 네 가지 측면들이 이 책의 1, 2, 3, 4장에서 검토되고 있다. 나머지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기본적인 성서우주론에서 주요한 논쟁점으로 부각되는 몇가지의 특정한 문제들 즉 연대기, 인구, 화석, 열역학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 장들은 매우 흥미로운 토론들을 담고 있다.

본서의 내용을 장별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우주가 태초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성서적으로 사실일 뿐 아니라 진정한 과학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성서의 창조론은 현대과학이 경험을 통해 발전시킨 우주법칙의 기본구조 즉 ‘에너지 법칙’에 의해 잘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현재에는 어떤 물질도 창조될 수 없기 때문에 과거 일정한 시기에 최초의 창조시기가 구별되어 있었으며(열역학 제1법칙인 ‘질량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근거함) 그후로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창조된 우주가 유지 보존의 작용 가운데 점차로 소멸하는 방향으로 붕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에 근거함). 특히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진화의 증거들 즉 비교해부학과 발생학적 유사성, 생물학적 변이성, 지질학적 연대와 화석 등이 오히려 창조론적 입장에서 보다 잘 설명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이 현대 과학에도 잘 부합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창조의 연대기는 지질학적 연대기와 가장 조화시키기 불가능한 것으로서, 본서에서는 약 50억년전에 지구가 출현한 이래 100만년전 비로소 인류가 출현했다고 하는 ‘오래된 지구의 점진적 진화론’을 부정하고 ‘젊은 지구의 6일 창조론’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이론의 조화가 가능한 ‘날-시대 이론’과 ‘간격이론’ 등은 모두 과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모순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2장에서는 진화론과 맥을 같이 하는 균일론을 비판하고 노아의 대홍수사건을 가장 타당성 있는 격변설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최근 지질학적 해석에 있어서 균일론의 한계성이 대두되면서 격변론의 가능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현대적인 격변설(대운석설, 지각변동이론, 혜성충돌이론, 지축동요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비록 성서의 대홍수에 의한 전세계적 격변은 아직 수용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여타의 격변설 또한 입증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는 것과 노아

홍수의 성서적 역사성을(창세기 8장, 베드로후서 2장, 누가복음 17장) 근거로 볼 때 오히려 추론적인 다른 격변론보다도 더욱 명백한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대홍수는 창조이래로 작용하는 물리적인 붕괴속도와 소멸과정들을 가속화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으며 많은 퇴적물들과 화석들은 물을 매개로 한 대격변에 의해서만 형성되고 보존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명백한 기록이라는 것이다.

3장에서는 현재의 우주가 창조와 대홍수때와는 구별되는 일정한 자연법칙과 자연과정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전제하고(히브리서 1:3) 이러한 상황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현대과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진정한 기적은 자연법칙의 기본틀인 열역학법칙에 역방향으로 작용하는 사건으로 규정할 때 크게 ‘섭리의 기적’(자연과정의 촉진 혹은 지연)과 ‘창조의 기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창조의 기적’은 이 우주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현재에도 이루실 수 있는 사건임을 주장하고 있다. 창조의 기적을 보여주는 예로서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오병이어의 기적, 물위를 걸으심, 장님의 치유 등등)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정점을 이루는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기적’이 야말로 영적세계와 연결되는 창조의 기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4장은 성서적 우주론의 결말부분으로서 우주의 미래에 대한 성서적 견해를 담고 있다. 최초의 우주는 물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미래의 우주는 불에 의해 파괴되고(베드로후서 3:43) ‘새하늘과 새땅’이라는 새로운 우주가 주님의 재림을 통하여 성취될 것을 성서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요한계시록 21:1). 여기서는 미래의 우주가 대환란 시기의 지구물리적 변화를 통하여 천년왕국시대에 대홍수 이전 세계의 상태로 회복되며 나아가 최후의 심판 후 새땅이 도래할 때는 타락이

전의 에덴동산으로 복원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단지 천년왕국시대에는 더 살기 좋은 환경을 갖게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새땅에는 죄로 인한 죽음과 저주가 완전히 사라진 곳이 된다는 점에서 두 세계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그곳에는 더 이상 열역학 법칙들이 작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불의 심판 뒤에 도래할 새 땅은 다른 행성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지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로 인해 새롭게 탄생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5장은 지구역사의 진정한 연대기적 틀을 재정립해 보려는 차원에서 창세기(1장~11장)의 연대기와 지질학적 시대의 불일치를 성서적 관점에서 조망하였다. 여기서는 성서의 연대기를 재해석하는 세가지 이론인 ‘하루-시대이론’, ‘간격설(재창조설)’, ‘족보간격설’ 등을 신학적, 과학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많은 모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물리적인 지구연대측정법의 불확실한 가정들과 기술적 오류들을 소개함으로써 지구와 인류역사에 대한 진화적인 연대기와는 어떤 타협도 가능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

6장에서는 5장의 연장으로서 성서 연대기의 진정한 의미를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최초의 인류 이후 현재의 세계인구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견지에서 대홍수 이전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현재의 인구를 예측하고 지질학적 연대기와 비교함으로써 성서적 연대기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따라서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현재 인구 수로의 성장은 가능하며 인류역사는 성서족보의 생략과 질병 및 전쟁의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10,000년을 넘지 않은 것이 여러면에서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설명한다.

7장에서는 진화의 역사적 기록이라 증거되어왔던 화석과 화석형성에 관여하는 퇴적현상을 수력공학적 분석에 의해 재평가하고 있다. 균일론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퇴적암층과 화석의

존재는 물에 의한 대격변과 퇴적의 수력학적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층과 화석의 형성과 순서는 진화의 증거이기 보다는 수력학적, 지형학적 요인 및 생태학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대격변의 증거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외에 격변론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서 화석무덤, 다지층화석, 일시적 표식, 성층화 현상, 지층내 연질부의 보존, 층적계곡, 사행적 협곡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단일한 격변에 의해서도 현재의 지질학적 형태와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부연하고 있다.

8장에서는 우주 안에서 열역학적 원리의 보편성을 통해 진화론의 허구성을 강력히 비판하고 이 원리와는 대비되는 하나님 말씀의 영원성과 그 의미를 제시한다. 특히 열역학 제 2 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원리가 물리적 과정 외에 개방된 체계인 생물학적 체계나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임을 보여줌으로써 열역학 법칙의 반진화론적 의미를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붕괴와 소멸의 보편적 원리와는 달리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분의 말씀만이 우주에서의 태양의 역할과같이 우리의 힘과 생명 그리고 구원의 원천이심을 역설하고 있다.

이상으로 각 장별로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 책의 의의와 약점들을 몇가지 생각해 보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은 오랫동안 비과학적인 이유로 진화론의 흐름에 밀려 거부당해 왔던 '성서적 우주론' 및 '성서적 자연관'의 위치를 새롭게 확립시켜 주고 있다. 이것은 성서의 세계관과 역사관이 진화적 우주론에 비해 현대 과학적 관점에도 더 잘 부합된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본서는 창조, 격변, 보존, 종말이라는 우주의 전과정을 성경적 입장에서 조망하는 '종합적인 성서 우주론'의 정립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격변론의 설득력

있는 증거 제시, 인구 통계학적 분석을 포함한 지구 연대기의 재해석 및 우주의 근본적 원리로서의 열역학적 의미들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저자의 뛰어난 통찰력이 돋보인다. 단지 성서적 연대기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6일 창조’와 ‘젊은 연대’에 대한 주장이 신학적으로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가 아직은 부족함으로 좀더 신중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주의 종말관에 있어서 ‘천년년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입장의 성경해석을 따르고 있으므로 마지막 대환란과 최후심판에 나타날 지구 물리적 변화의 시기와 본질에 대해서도 신중한 해석이 요청된다 하겠다. 우주 생성 과정의 현대 천문학적 견해에 대한 성서적 조망이 빠져 있다는 것도 조금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가장 큰 가치와 도전은 풍부한 성서의 인용과 함께 성서적 역사의 틀 속에서 그동안 진화적인 균일론의 틀에서만 해석되어 왔던 현대과학의 자료들을 평가함으로써 ‘진정한 성서적 우주론’을 재정립하기 위한 저자의 남다른 열의와 노력이 담겨있다는 것과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 더욱 광범위한 분야의 조사와 무수한 헌신적인 기독교학자들의 연구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말 이 작은 책이 학문영역에 있어서 빼앗긴 하나님의 주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복해 나가길 열망하는 분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격려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책은 1970년에 출판되어 뒤늦게 번역된 것으로 번역이 매끄럽지 못한데 비해 최근에 출판(1984)되어 이미 번역된 ‘현대과학의 성서적 기초’(요단출판사, 1988)를 참고하면 여러 학문적 차원에서 더욱 발전된 ‘성서적 우주론’을 접할 수 있을 것이다.